

뜨거운 청문 정국... 여야, 역대급 대치

'尹 탄핵 청원' 19일 '채상병 수사 외압'·26일 '김건희 의혹' 다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24·25일 인사 청문회...국힘 "원천 무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극심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1차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러한 청문회 일정에 대해 '원천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야당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하고 두 번에 나눠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19일 예정된 첫 번째 청문회는 국민 청원에 언급된 5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주제로 한다. 26일 열리는 2차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다.

여당의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애초 대통령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제시한 국민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증인 명단을 채택한 것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민대표권, 안전심판·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은 상태다.

국민의힘은 무엇보다 야당의 청문회 강행에는 대통령 탄핵 여론을 부추기는 동시에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검사 탄핵에 대한 비판을 희석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렸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정쟁을 위한 청문회에 동조할 이유가 없다"며 "19일 청문회 강행 시 여당은 불참하거나 간사 등 일부가 참석해 의사행위 발원으로 청문회의 정당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참석 여부와 관계 없이 1차

청문회에서 반드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23일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채상병특별법 입법 청문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보고 이번에도 재차 이중섭 전 국방부장관 등을 상대로 사건 당시 정황을 추궁하며 그 이상의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에는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모 씨가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이씨를 상대로 일전을 벌이고 있다.

이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멍을 도왔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가 최근 공개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씨의 증언이야말로 수

사 외압 의혹의 스톱킹건(결정적 증거)"이라며 "핵심 증인인 이씨로부터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진숙 방통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을 위해 16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내정을 '방송 장악용 인사'로 규정하고 24~25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어 MBC 대주방방송문화진흥회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를 따진다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무총리급 후보자 외에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짜리 청문회를 연 적이 없다며 민주당의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 증인들에 대한 고발계획을 밝히고 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당시 청문회 증인이었던 이중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6명에 대해 '국회에서 증언·감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국힘 당권 '운명의 일주일'

TV토론·당원 투표...한동훈 우세 속 3명 후보들 뒤집기 총력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운명의 일주일'을 맞았다.

차기 대표를 선출하는 '7·23 전당대회'가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후반전 승부를 가를 마지막 합동 연설회와 TV 토론, 당원 투표가 이번 주 진행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한동훈 후보는 '한판 끝내기'에, 나경원-원희룡-윤상현(가나다순) 후보는 '결선 뒤집기'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한 후보 캠프는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결선투표 없이 승부를 결정짓는 '굳히기'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쟁자들이 그동안 '김건희 여자 문자' 논란, 윤석열 대통령과의 불화설 등을 앞세워 파상 공세를 퍼부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다른 후보와의 격차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가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2위로 치고 올라온 나 후보는 막판 역전 레이스를 펼쳐 보일 것이라는 각오다.

원 후보는 김 여사 문자 논란, 채상병 특검법 등을 고리로 한 후보와 윤 대통령의 불화설 이슈를 계속해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후보는 한·원 후보가 당권을 잡으면 친한·친윤 줄 세우기로 인해 당이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자신은 계파 정치에서 자유롭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오는 23일 대표 경선에서 과반 1위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는 28일 실시된다.

당 주류인 친윤계 조직력이 얼마만큼 작동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친윤계가 움직여 결선투표까지 가지 않았던 지난해 3·8 전당과 반대로 이번에는 친윤계가 '한동훈 단판승'에 제동을 걸고 결선으로 갈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이런 측면에서 당권 주자들은 경선 투표의 80%를 차지하는 당원 표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원 투표는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모바일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野, 이중섭 등 6인 '증언 거부' 고발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 당시 선서 거부 등 국회 모욕 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달 21일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중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고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총 6명의 증인은 선서 거부, 증언 거부, 위증과 거짓말, 국회 모욕을 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청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에 따라 이들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이들은 "이중섭 전 장관과 신병철 전 국방차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은 정당한 이유로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더구나 이중섭, 임성근 증인은 거짓말로 국회를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문회 당시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수사외압에 대통령이 개입했는지'를 묻는 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했다"며 "이 역시 국회 증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당시 청문회 종료 후 특검법 상정을 앞두고 회의장을 떠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이 법안 심사 절차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박 장관은 무단으로 이탈했다"며 "모

욕적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했다. 국회 모욕의 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동의청원' 청문회 출석요구서 전달차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다가 제지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당시 현장에서 요구서를 송달하려는 법사위원들에 대한 폭력행위가 있었다"며 "경호조 관계자가 요구서를 가지고 나와 바닥에 내던진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사소송법상 출석요구서 송달 행위를 모두 마쳤다. 19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증인들의 출석 의무는 충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사위는 김승원 대통령경호조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7명을 포함해 총 22명을 오는 19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연합뉴스

"광주시당 위원장 합의를 추대, 당원 주권 역행"

혁신회의 '담합 해체 선언하라' 성명

강성 '친명' (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가 14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후보를 합의·추대한 광주시당 8명의 국회의원들을 겨냥해 '당원 주권 시대' 역행을 지적했다.

혁신회의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당원 주권 시대를 역행하고 당원·당규를 위반하는 광주 국회의원들은 당원 의사 결정권 보장을 위해 담합 해체를 선언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시당 국회의원들은 국회 출신 지역 언론사들과 간담회에서 스스로 담합과 짬짜미 의사를 밝혔다"며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를 합의·추대해 공표한 곳은 광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광주 국회의원들은 양부남(서귀포) 의원을 시장 위원장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혁신회의는 "이재명 전 대표가 광주 당원과의 만남을 통해 '그동안 현역의원들의 협의로 시·도당 위원장을 정하던 관행을 깨고 당원들이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당원 주권 시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었다"며 "광주 국회의원 8명의 담합과 짬짜미는 당원 주권 시대를 위한 역사적 전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 응집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판 (TMS-600+)
- 평형 산기판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x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일인더스트리㈜ 법인설립
- 2011 수출박람회, 우수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기업창업진흥원 (모범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적 모범업체사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일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공 고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 제1항(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발전소 명칭	대표자	비고
수성화석발전소 말양동1호2호 태양광발전소	최태근	최태근
최진주, 최희주, 최갑주 말양동3,4,5호 태양광발전소	최진주 최희주 최갑주	최진주 최희주 최갑주
최병익, 최용서 말양동6,7,8,9호 태양광발전소	최병익 최용서	최병익 최용서
최용준, 최재홍, 최영복 말양동10,11,12,13호 태양광발전소	최용준 최재홍 최영복	최용준 최재홍 최영복

1. 사업장소재지 : 전남 나주시 다시면 동곡리 345-1, 349-1, 348-2
말양동1호2호 태양광발전소 : 498.96kw, 4.912㎡ * 2개소
말양동3호~13호 태양광발전소 : 99.54kw, 1,200㎡ * 11개소
2. 사업기간 : 2024.10 ~ 2026.09
가. 사업개시 예정일 : 2026.10
나. 사업운영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0년
3. 의견제출방법 : 위항에 따라 공고된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자는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가. 의견제출기간 : 24.07.15~24.07.21 까지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으로 제출
다. 제출처
위 발전소 대표사 대표자 : 최희주
주소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송촌동곡길 247-5
연락처 : 010-3479-4304

2024. 07. 15.
공고인 : 위 발전소 각 대표자